

영어회화본문구조에서 예비제시발언에 대한 분석

최 경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회화는 가장 적극적인 언어행위이며 회화능력은 외국어소유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어용론의 관점에서 회화본문구조를 분석할 때 린접쌍발언, 말차례바꿈, 예비제시발언, 삽입발언 등과 같은 구조격식을 설명하게 된다.

영어회화본문구조의 어용론적분석은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 진행되는 이러저러한 발언들이 어떤 호상면관속에서 흐르는가 하는것을 밝히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말하여 순서가 바뀌면서 진행되는 회화과정에 회화참가자들이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리해하며 일상회화에서 자기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 때 말바꿈이 적절하게 이동하는가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 글에서는 영어회화본문구조에서 보게 되는 예비제시발언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예비제시발언이란 자기 의도를 먼저 일부 말마디로써 예비적으로 중떠보기를 진행하여 상대방에게 그 어느 한 발화행위를 실시해도 되겠는가고 알아보는 발언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예비제시발언이란 그 자체가 회화의 기본부분은 아니지만 기본부분으로 이끌어주거나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데 리용되는 준비발언이다.

회화참가자들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발언에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자기 발언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비제시발언을 한다.

예비제시발언은 진술내용과 진술목적에 따라 요청전예비제시발언, 초청전예비제시발언, 선언전예비제시발언, 끝맺기전예비제시발언 등으로 나누어진다.

무엇보다먼저 요청전예비제시발언이 있다. 요청전예비제시발언은 요청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말하는 사람이 요청을 해도 되겠는가를 예비적으로 중떠보는 발언을 말한다.

례 ①: A: Mummy!

B: Yes, dear.

A: I want a cloth to clean the window.

②: A: John!

B: Yeah?

C: Pass me the salt.

례①과 ②에서는 A가 부름말로써 자기가 요청을 해도 되겠는가를 중떠보기를 한데 대하여 B는 인차 응하게 된다. 례①에서의 어머니 B는 아이가 요구하는대로 창문을 닫게 걸레를 줄것이며 례②에서 B는 A에게 소금을 가져다줄것이다. 이처럼 부름말은 요청전예비제시발언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다음실례는 상점에서 손님과 판매원사이의 대화이다.

례③: A: Do you have the blackberry jam? (요청전예비제시발언)

B: Yes. (계속 말하게 한다.)

A1: Okay. Can I have half a pint then? (요청)

B1: Sure. (돌아서 가져다준다.) (반응)

우의 례에서 A의 발언 《Do you have the blackberry jam?》을 통해서 자기가 검정딸기잼을 사려고 한다는것을 암시하였으며 A1은 자기의 요청의 의도행위를 전달하는것이다.

례④ A: Hi! Do you have uh size C flashlight batteries?

(요청전예비제시발언)

B: Yes, sir. (계속 말하게 한다.)

A1: I'll have four, please. (요청)

B1: Sure. (돌아서 가져다준다.) (반응)

레③과 ④에서 please는 쓰든 쓰지 않든 관계없이 그 말을 일반적인 진술로 잘못 이해할수는 없는것이다. 그것은 A가 말을 시작할 때 미리 요청전예비제시발언으로써 물건을 사겠다는것을 암시했기때문이다.

다음으로 초청전예비제시발언이 있다.

초청전예비제시발언은 초청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일부 말마디로써 상대방에게 초청해도 되겠는가를 알아보는 예비제시발언이다.

레①: A: Hello, what are you doing?

B: Nothing.

A: Want to play chess?

B: Great!

레①에서 A가 처음 하는 말은 B에게 《초청》하겠다는것을 예비적으로 제시하였기때문에 B의 대답과 뒤에서 A가 하는 《초청》이 어울리는것이다. B가 말한 《Nothing.》은 B에게 시간이 있다는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때문에 A로 하여금 초청을 순조롭게 제기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레②: A: Hi, John. What are you doing?

B: Well, we're going out. Why?

A: Oh, I was just coming over here to play badminton with you, but if you're going out you can't do that.

이 레문에서 B는 A의 초청전예비제시발언을 이해하였기때문에 자기는 외출을 하려고 하지만 A의 초청내용을 알아보고 《Why?》라고 말하여 초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달라고 요구하는것이다.

다음으로 선언전예비제시발언이 있다.

선언전예비제시발언은 선언하는 말을 하기 전에 일부 말마디로써 상대방에게 선언을 해도 되겠는가고 가늠해보는 예비제시발언을 말한다.

선언전예비제시발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선언할 내용이 어떤 류형에 속한다는것 또 어떤 사람과 관련된다는것을 암시한다.

둘째로, 선언내용에 대하여 평가(레를 들면 좋다, 나쁘다)한다.

셋째로, 흔히 선언할 사건이 생긴 날자를 가리킨다.

넷째로, 대체로 선언할 내용을 대표하는 변수(variable)가 있다. 레를 들면 wh-단어,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단어결합 등이다. 이 변수는 두번째 단계의 회화에서 선언할 내용을 음미하게 한다.

선언전예비제시발언은 이 특징들가운데서 한가지이상을 포함하게 된다.

레①: A: Oh, guess what I'm going to tell you about, John Milton.

B: What?

A: Well, he got married and he wrote "Paradise Lost". Then his wife died and he wrote "Paradise Regained".

②: A: I forgot to tell you the two best things that happened to me today.

B: What were they?

A: I got a B on my math test ... and I got an atheletic award.

선언전예비제시발언은 흔히 말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가 미리 예견하지 못한 내용이라든가 모르는 사건을 전달하려고 할 때 나타나며 그때 하는 말은 보통 유모아적성격을 띠게 된다.

레③: A: Hey, you never guess what Jimmy did for me.

B: Did he help you do this sum?

A: No, he didn't help me, he did it all.

④: A: Jackson, my wife has the worst memory I ever heard of.

B: Why? Forgets everything, eh?

A1: No, remembers everything.

다음으로 끝맺기전예비제시발언이 있다.

끝맺기전예비제시발언은 회화를 끝맺는 말을 할 때 회화가 인차 끝난다는것을 미리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예비제시발언이다.

물론 회화를 끝맺는 말을 하기 전에 억양이나 말의 속도에서의 변화, 숨들이쉬기와 손동작, 눈시선맞추기, 몸짓 등과 같은 몸짓언어가 동반된다. 실제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에서 일어서는것은 작별인사를 하려고 하는 몸짓언어로 이해하는것으로 공인되어있다.

회화가 끝날 쯤에 대화자들에게는 이제 곧 대화가 끝나감을 알리는 일종의 끝맺기전예비제시발언이 필요한데 이런 발언은 상대방에 의해 반복되며 그뒤에는 작별인사가 뒤따른다.

례①: A: I'll ring you Thursday night then. (그럼, 목요일 밤에 전화할게.)

B: All right. Ring us Thursday. (좋아. 목요일에 전화하라구.)

A: Yes, I will. (응, 전화해.)

B: Bye bye then, dear. (그럼 귀엽둥이, 잘 가.)

A: Bye. (잘 가.)

례①의 대화구조를 보면 대화쌍방이 도덕과 어긋나게 거칠게 대화를 끝마치는것을 피하게 할뿐아니라 예비제시발언을 하여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줌으로써 잊고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마저 보충할 기회를 준다.

끝맺기전예비제시발언들은 말그대로 끝맺는 말의 시작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전화대화에서 《OK》, 《Well》과 같이 자기들이 한 발언을 개괄하는 수단들은 종종 대화가 인차 끝난다는것을 알려준다.

예비제시발언을 쓰는 목적은 우선 상대방에게 어떤 언어행위를 할수 있겠는가 없

겠는가를 알아보자는데 있다.

상대방이 이러한 예비제시발언에 대하여 잘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그다음의 발화행위는 제기도 될수 없으며 실현되기도 어렵게 된다. 뿐만아니라 예비제시발언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정적반응을 일으키면 말하는 사람의 발화행위는 제기될수 없게 된다.

예비제시발언을 하는 목적은 또한 레절표현의 견지에서 체면유지를 하기 위해서이다.

레절의 견지에서 보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면문제가 나서게 된다. 그리하여 무엇을 요구하거나 방조를 청하면서도 체면을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체면에 손상을 줄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기회를 마련하는것이다.

요청전예비제시발언을 하는것도 바로 이러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볼수 있다.

례①: A: Are you busy?

(바쁘십니까?—요청전예비제시발언)

B: Not really.(아니, 그닥 바쁘지 않는데요. - 하던 말을 계속하라는 말)

A: Check over this memo.(이 각서를 하나 봐주십시오. - 요청)

B: Okay. (그러지요. - 승낙)

②: A: Are you busy? (바쁘십니까? - 요청전예비제시발언)

B: Oh, sorry. (아, 미안합니다. -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킬수 있는 발언의 증거)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것은 자기가 지금 바쁘다는데 대하여 사과할뿐아니라 기대하는 요청에 대하여 들어줄수 없는것에 대한 사과이기도 하다.

예비제시발언은 불쾌한 소식을 전달할 목적으로도 쓰인다.

례: A: I - I - I had something terrible

t'tell you. so - so - so uh. (저,
저, ... 상스럽지 못한 일 하나 ...)
B: How terrible is it? (아니 뭐가
상스럽지 못해?)
A: Wh, th-as worse it could be.
(그 이상 더 끔찍한 일이 없지.)
B: Wm-y, ean Edna?
(아니, 저 무슨 소리야, 에드나?)
A: Uh yah. (음...)
B: What she do, die?
(어떻게 되었어? 죽었어?)

A: Mm, hm. ... (어, 어, ...)
불쾌한 소식인 경우 예비제시발언의 사
용은 상대방이 발언내용을 추측하도록 함
으로써 말하는 사람이 그 불쾌한 소식을
알려주어야 하는 행동을 완전히 피할수 있
게 할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회화본문구조분석과 같
은 어용론적분석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
시켜 외국어교육을 회화본위로 진행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
하여야 할것이다.